

천태종

법공양 페이지

- * ... 현대불교신문은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과 공동으로
- * ... 제작하는 법공양면을 펴내고 있습니다. 법공양면은 본
- * ... 지의 편집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존의 지면(주16면)
- * ... 과는 별도로, 동침을 원하는 종단·사찰이 스스로 제
- * ... 작의 주체가 되어 자기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지

상월조사, 지자·의천 '천태법등' 다시 밝혀

천태종 중창 上月圓覺 대조사



조사는 원효대사가 수행했다는 태백산 유곡석굴에 은거, 참선을 했다. 이때 대조사는 수행을 위해 보름, 20여일씩을 단식하며 수마(睡魔)와 싸우고, 목아래 가시덤불을 밟고 정진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식량이 떨어지면 초근목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백척간두에 서서 생의 의미를 천착하여 마침내 정해(定慧)를 자중, 깨달음에 이른다. 2년간의 이러한 정진은 또다른 세계에 대한 체험을 촉발시켰다.

1912년 중국의 동상성(만주국)에 들어가 수행과 교화를 했다. 대조사는 중국 본토 들어가 절강성 천태산 국청사(國淸寺)와 관음성지 보타락가산을 예향하고, 서역까지 권력하면서 각고의 수행을 계속하였다.

대조사는 8·15를 전후하여 깊이 뜻한바 있어 국내 명산승지를 두루 답사하시다가 소백산 구룡낙맥 아래 연화지에 이르러 초암을 열고 불석신명(不石神命)으로 지관삼매(止觀三昧)의 각고 정진을 했다. 지관삼매에 들면 머칠이고 자리를 뜨지 않았으며 영당의 살림이 통그러지는 것도 몰랐다. 영하의 추위에도 대조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참선을 할 때는 관음정진에 주력하였다. 오늘날 천태종의 수행가풍은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전정종에는 시봉 대종(천태종의 2대 종정) 스님과 신도들의 강권으로 공주 마곡사로 피했다. 지난 중에도 대조사는 수행정진하면서 굶주린 사람을 도왔고, 특히 질병을 앓고 있는

종지

천태종의 근본 종지는 일승보법의 교의를 근본으로 하여 불성(佛性)의 보편과 존엄을 스스로 믿고 자각각제(自覺覺他)의 보살도를 실천하여 안으로 자아완성을 기하고 밖으로 사회의 평화와 각화(覺化)시켜 일제종생 개생불(一切衆生皆成佛)과 불국토건설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러한 확고한 기반 위에서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천태종은 중창조이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이념정신 계승과 유지를 받들고 흡양(欽仰)하는 조사신앙과 관음신앙과 수행불교를 통한 염불선이 종풍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자아완성 사회정화 불국토 건설 실현



총본산 구인사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지리에 있는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수백·백국·구세·대중불교를 지표로 3백여명의 스님이 수행·전법에 전념하고 있다.

수행

천태종은 화상귀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지관수행(止觀修行)을 하고 있다. 즉 행주좌와(行住坐臥) 가운데 무사선(無時禪)이 있으며 여기에는 지관수행이 최상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경야선(晝耕夜禪)을 통한 삼종지관(三種止觀)과 사종삼매(四種三昧)를 수행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사부대종은 일년에 두차례 한달씩 안거를 실시한다. 주경야선으로 종도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사찰에 나와 관음정진을 한다. 이것은 대조사님 재세시 사부대종에게 법화정진의 관세음보살문중에 수록된 가르침에 따라 일념으로 관음보살을 명호하여 수행정진 하라고 교시함에 따른 것이다.

법화경 가르침 따라 낮에 일 밤엔 염불



수행

천태종은 사부대종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관음정진하는 수행 가풍이 독특하다.

피나는 수행끝 無上大道 성취

가는 곳마다 굶주리고 병든 중생 교화구제

1월18일 제84회 탄신일

삼학에서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2대 독자로서 1911년 출생한 상월 대조사는 속망이 중풍이다. 조부와 친부는 모두 유학에 정통한 분으로 향양의 풍운과 난세를 피해 산간에 은둔하면서 사는 것으로 자족했다. 대조사는 어릴 때부터 기골이 준수하고 성품이 관우했다. 7세에 한문서당에서 수학하였으며, 15세에 (사서삼경)은 물론 (제자백가)의 서(書)를 마쳤다.

우연히 '자경문(自覺文)'을 접한후 불문에 든 상월대조사는 금강산으로 들어가 토굴에서 홀로 수행하다가 은사인 법은(法雲)스님을 만나, 오늘날 천태종의 수행덕목인 주경야선(晝耕夜禪)과 윤력을 하면서 은사의 시봉을 돕는 등 어려운 수행을 해나갔다.

은사 법은스님이 3년만에 입적하자 대교과를 마치기 위해 건봉사, 유점사, 일정사 등의 명강백을 찾았으나 그리 응축하지 않았다. 대

사람을 파유케했다. 그리하여 주위 인근에서는 이언이 나타났다고 했다.

수북후 소백산으로 돌아온 상월 대조사는 다시 초암을 짓고 수행과 교화에 온 정성을 기울였다.

대조사는 천태지관법으로 수행하면서 만경구적(萬境俱寂)의 공삼매(空三昧)를 체인하고, 1902년 12월 28일 환연대오하여 무상대도를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산빛은 고금 박이요(山色古金外), 물소리는 있고 없는 공간이로(水聲有無中), 한번 보는 것이 만감을 깨뜨리니(一見破萬識), 성품 공한 것이 바로 부처님 어머니로다(性空眞佛母)'라는 오도송(悟道頌)을 읊었다.

대조사는 71년 6월 17일, 다음과 같은 열반계를 남기고 마침내 열반에 드니 세수 86세 법랍 49세였다.

'모든 부처가 세상에 나오지 않고(諸佛不出世), 또한 열반에도 들지 않았네(亦無有涅槃), 나고 죽는 것이 본래 없음(生死本空寂), 찾다가 비는 것이 한 달의 바리보세(隨處一月輪)'

교세

천태종은 상월대조사가 주창한 새 불교, 새 신앙 운동의 열인과 광도종생의 대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의 이념 아래 새 신앙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적 지표는 사회적 대중불교, 산업적 수복(修福)불교, 실천적 생활불교, 실질적 애국불교, 이타적 구세불교를 구현하는데 있다.

종단의 기구조직은 제3세 김도용 중정예하를 중심으로 총무원, 감사원, 종의회, 참의원, 임로원이 있고 독립기관으로 금강학원, 총학위원회, 고시위원

회, 산발위원회가 있다. 총무원 신하로 종단 문서포고, 홍보 등을 담당하는 '천태종보'와 일간 '금강'이 있다. 그리고 본산으로 전국말사 및 포교소 350개소, 전국 신도 155만, 상주승려 3백여명, 연건평 6500평, 50여동의 당우들이 경내를 가득 메운채 들어서 있다.

또한 말사 가운데 부산 상광사는 현대 규모의 전국 최대사찰로 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서울 관문사, 대전 공수사, 대구 대성사, 울산 정광사 등에서 공지의 대자본사가 진행되고 있어 독일승현

신도 155만명 · 말사 포교소 350곳 승·속 공동참여 '새 불교운동' 전개

금강학원은 총림교양대학인 금강불교대학이 있으며 본교가 서울 독성에 자리하고 본교는 부산 상광사 안에 있다. 현재 구인사는 대한불교 천태종 총

하는 천태종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종단 신도 중앙기구는 전국신도회와 전국 청년회 중앙기구인 중앙청년회, 전국 학생연합회, 전국 어린이 지도교사 단체인 영리회가 있다. 종단에 등록된 전국 청년회가 60개 지역, 학생회 60개 지역, 어린이회 70개 지역이다.

전국 8개 유치원이 설립되어 현대식 설과 전문 유아교사, 알찬 교육프로그램, 놀이기구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린이 인성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양물은 대다위 목장과 농장을 운영하여 스님들이 직접 윤력을 통해 농작물을 수확 공급하고 있다.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 - 땅은 곳마다 부처님 땅 되게 하소서

忠北丹陽郡永春面柏子里 132-1
 電話 (0444) 423-7100~8
 FAX (0444) 20-3399

救仁寺專門講院

金剛佛敎大學學長

宗典研究院長

宗典譯經院長

中央信徒會長

參議院長

參議院長

監查委員長

監查院長

宗會議長

副議長

副議長

宗正私書室長

社務部長

財務部長

教育部長

總務部長

總務部長

總務部長

總務部長

總務部長

總務部長

總務部長

總務部長

總務部長

總務部長

總務部長

總務部長

總務部長

總務部長

總務部長

總務部長

總務部長

總務部長

總務部長

總務部長

總務部長

金智福

李載燾

金煥泰

李煥燾

金昌燾

李燾燾

金燾燾

朴燾燾

趙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朱燾燾

大韓佛敎天台宗 宗正 金道勇 大禪師